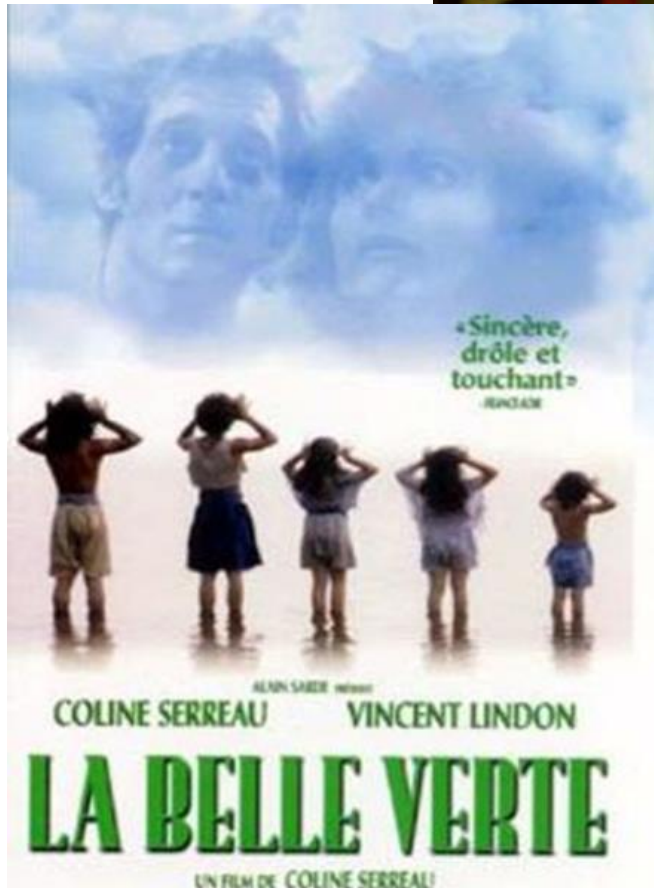


프랑스 대중 영화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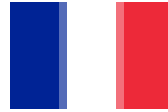


프랑스 대중 영화 대표작

마르셀의 여름(우리 아빠의 영예) 마르셀의 추억(우리 엄마의 城)



Le Château De Ma Mère



- Directed by Yves Robert
- Produced by Alain Poiré
- Written by Marcel Pagnol (novel),
- Scenario Yves Robert, Jérôme Tonnerre

Starring

- Philippe Caubère
- Nathalie Roussel
- Thérèse Liotard
- Julien Ciamaca
- Narrated by Jean-Pierre Darras
- Music by Vladimir Cosma
- Cinematography Robert Alazraki
- Edited by Pierre Gillette
- Release date 26 October 1990
- Country France

어린 시절의 사건을 찾아가는 영화

- 나를 변화시킨 낯선 경험: 아버지의 초라함, 엄마의 불안, 새로운 친구와의 이별, 지인의 죽음.

풀은 묘지에 오래 전부터 누워있는
리리를 만났을 것이다
1차 대전 중 북쪽 어느 숲에서
총탄이 리리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다
이름도 모르는 차가운 풀 위에
그는 쓰러진 것이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짧은 환희의 순간들은
지울 수 없는 슬픔에 덮인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것을
말해 줄 필요는 없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추억함

나는 천천히 그 추억의 길을 따라 걸었고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내 곁을 스쳐갔다
운하 근처 담 아래 그 검은 문도 그대로였다
우리의 휴가 길을 막았던 그 문...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던 그 문...
가슴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시간의 문 저쪽으로...
벌써 몇 년째 거기에 있었을
갈색머리의 젊은 여자가 보였다
뛰는 가슴에 로얄 장미 한 다발을 안고서...
경비원의 발소리와 개의 숨소리에 가슴을 조이며...
창백한 얼굴, 누구도 달랠 수 없는 겁 많은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기 아들의
집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만난 내 마음 속의 엄마 다시 만난 나의 유년

- “왔구나.”
- “돌아왔어.”
- “어디 가서 놀다 온 거야?”
- “대답해, 못된 것아...”

“예술가란 누구나 마음 속에 지니고 있지만
망각해버린 어린 시절의 나”

프랑스 스토리텔링 영화 감상에도 기승전결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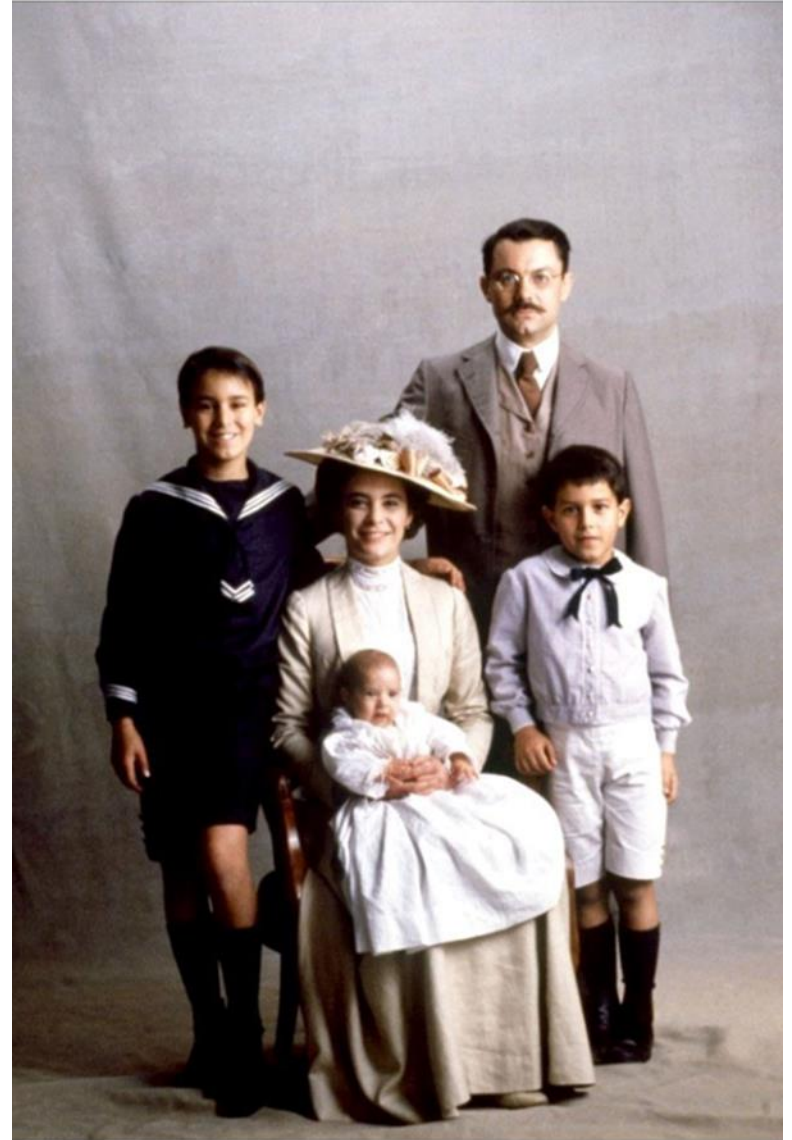
마르셀의 여름(우리 아빠의 영예)

마르셀의 추억(우리 엄마의 城)



내 안의 예술가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자본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지저분함도 아니다.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 저마다 조금씩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증오심으로 살해당한 '나' 속의 예술가이다.



DANY BOON

CLAUDE BERRI und JEROME SEYDOUX präsentieren PIERINO regie

KAD MERAD

Über 20 Millionen Franzosen können nicht irren!



Willkommen bei den SCHTIS

EIN FILM VON DANY BOON

“ÉMOUVANT, ÉPATANT, EN CHAN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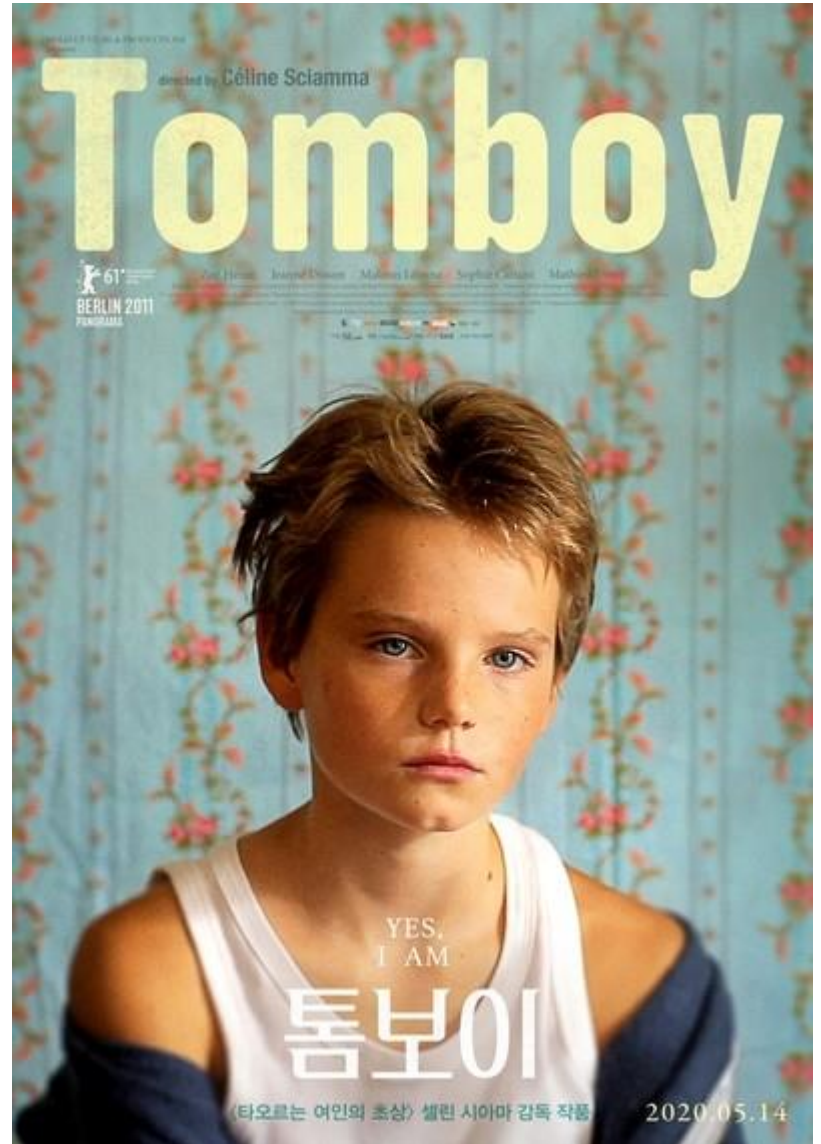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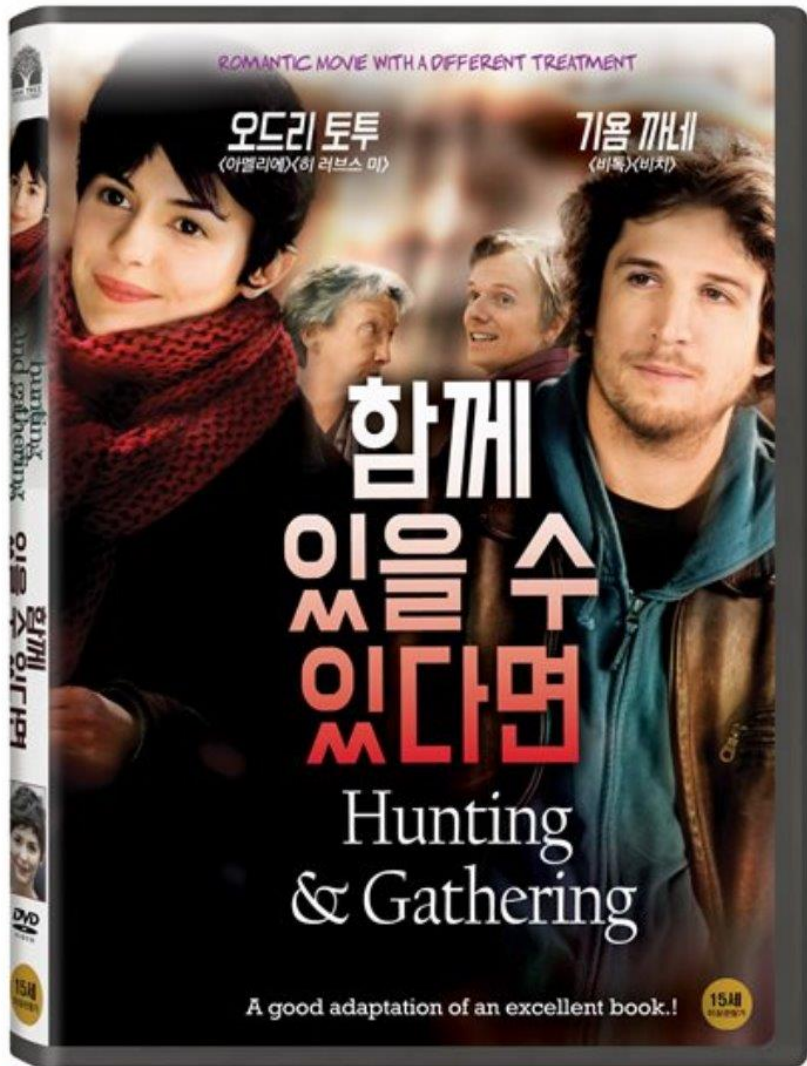
LE PARIEN / AUJOURD'HUI EN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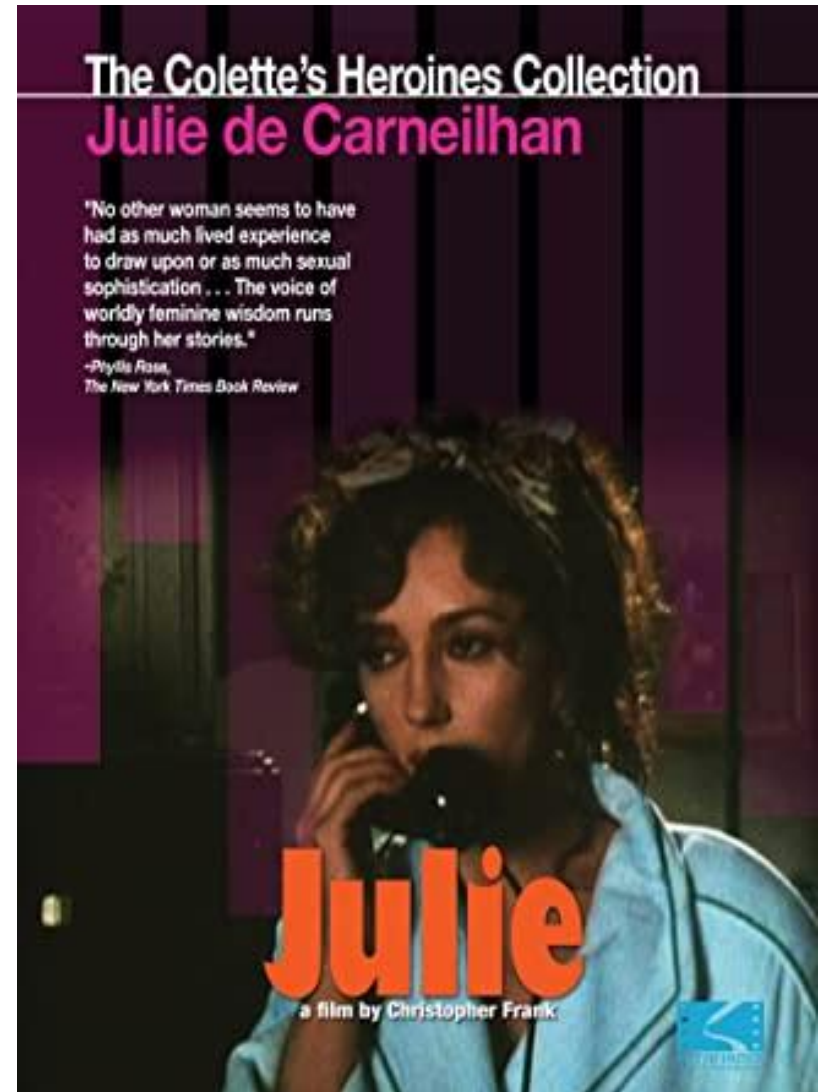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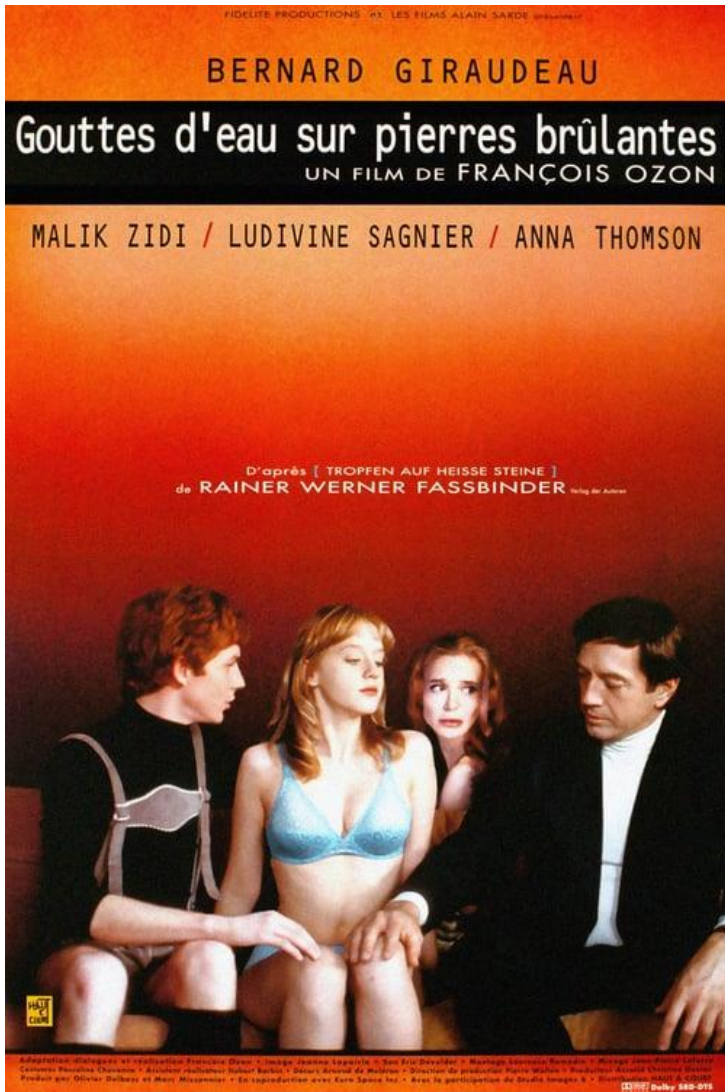


LA FAMILLE BÉLIER

CASH VARD FRANÇOIS BARRÉNO ERIC ELAROSINO EMERIE LOUANE ERIC LANTIERAU

동영상





보들레르의 Non-Moi



I loves you. I is your woma, It thinks.

랭보, 'JE est un autre('I' is another)'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나는 당신입니다'

Dolly zoom (Zoom-in Track-out)



주제와 소재는 달라도 살해당한 '나'를 치유하는 영화 감상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자본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지저분함도 아니다. '나'의 존
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 저마다 조금씩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증오심으로 살해당한 '나' 속의 예
술가이다.

영화 감상의 의미 추적하기

-영화의 기능-

상품성만을 강조한 영화와 달리, 감상의 감상으로서의 슬픈 연가로 사랑의 아픔을 달래는 음악가의 선율처럼, 평화로운 그림으로 가난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화가의 붓길처럼, 움직이는 사운드·이미지로서 영화 역시 마음의 아픔을 평화롭게 감싸고 흐른다.

인문 치유와 영화

교묘하게 영화 형식을 빌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상업영화와는 달리 작품성 높은 장편과 단편,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예에서 보듯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견지하는 영화인들의 진정한 어린 노력은 이제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영화인으로서 개인적 노력은 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수준은 사회적 건강의 척도이기에 프랑스처럼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